

## 공허한 지중해, '유럽' 탐욕의 괴물이 되다 - 루노 라고마르시노

August 14, 2017 | 장인경 기자

page 1 of 2



루노 라고마르시노 '바다문법(Sea Grammar)'.(사진제공=국제갤러리)

루노 라고마르시노는 지중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유럽중심주의와 그 폭력성을 고발한다.

국제갤러리 2층에 설치된 루노 라고마르시노의 두 작품, '바다문법(Sea Grammar)'과 '만약 돌이 모래일 수 있다면 (Como Si Piedra la Arena / As If the Stones Were Sand)'에는 잔인한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근원으로서의 회귀를 바라는 작가의 친절함이 묻어있다.

작가는 '바다 문법' 작품을 통해 바다라는 장소 특히 지중해라는 특정 공간안에 숨겨 있는 체계(제국주의적 폭력)를 폭로한다.

'바다 문법'은 80장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진 프로젝션 작업으로 처음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중해 바다지만, 총성을 연상케하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슬라이드 넘기는 소리가 날 때마다 지중해에는 구멍이 늘어나고, 결국 지중해는 총탄에 뚫린 바다처럼 집요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지중해라는 사냥감을 향해 쏘는 총성이며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집요하게 먹어버리는 괴물의 잔인함과 오버랩된다. 그리고 또다시 어딘가를 향해 서성이다 총성이 울려퍼질 듯한 여운을 남긴다. 체계와 규칙을 가지고 은밀히...

작가는 이 작품에서 지중해가 유럽중심주의를 상징하는 '평화로운 바다'가 아닌,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증가한 대규모의 난민들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해역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바다 문법'이 지중해에 대한 고발과 재인식을 요구한다면, 작품 '만약 돌이 모래일 수 있다면'은 작가가 직접 비디오 작업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루노 라고마르시노 '만약 돌이 모래일 수 있다면'.(사진출처=루노 라고마르시노 홈페이지)

'만약 돌이 모래일 수 있다면'은 고대 지중해 조각상 같은 제국주의적 수장품을 지닌 코펜하겐의 박물관에서 작가가 직접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가져온 모래를 그리스 조각상 발 밑에 몰래 뿌리는 행위를 기록한 비디오 작업이다.

코펜하겐의 박물관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있는 지중해 조각상 앞에서 조각상의 고향으로부터 가져 온 모래를 작가가 직접 뿌리는 행위는 마치 집(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근처에서 주워온 흰 자갈돌을 놓아 둔 동화속 '헨젤과 그레텔'을 연상케한다.

혹은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을까 누군가 자갈돌을 놓아주기라도 하듯 작가의 행위는 공간안에서 낯설지만 매우 친절하다.

한편 국제갤러리는 루노 라고마르시노, 니나 카넬, 찰스 림 이 용, 김아영이 함께하는 4인의 작가 그룹전 'Gridded Currents'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